

# 慢性기침 患兒의 臨床的 考察

李承蓮\*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 ABSTRACT

### The Clinical Study in Children with Cough

Seung Yeon Lee\*

\*Dep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Pusa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the new effective oriental medical treatments. This study was performed at Dongeui Oriental Medical Hospital from October, 1, 1999 to November, 30, 1999, and 59 patients with cough persisting for longer than 3 weeks were evaluat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In sex, male was 32 patients(54.24%) and female was 27 patients(45.76%), and in age group, between 2 and 6 years was 43 patients(72.88%) as first.
2. In the distribution of complicated signs, sputum was 42 patients(71.18%) as first, rhinorrhea was 24(40.68%) as second.
3. In the style of cough, attack on morning or sleeping time was 32 patients(54.24%) as first.
4. In the past history, pulmonary diseases, such as pneumonia, bronchitis were 10 patients(16.95%) as first.
5. In the family history of allergy, allergic dermatitis was 6 patients(10.17%) and allergic rhinitis was 4 patients(6.78%).

## I. 緒論

기침은 의사가 접하는 가장 빈번한 환아의 主訴症 중 하나로서 다양한 胸部疾患의 基本症狀으로 간주된다. 일 반적으로 持續的이거나 反復되는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慢性기침이라 하여 바이러스 感染에 의한 短期間의 기침과 區別하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原因糾明이 필요하다<sup>1-3)</sup>고 하였다. 그러나, 慢性기침은 呼吸器의 感染, 副鼻洞炎, 先天性 畸形, 呼吸器의 异物, 알레르기 등 다양한 原因에 의해 誘發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原因들을 正確하게 糾明하기도 어렵고, 두가지 이상의 原因이 함께 存在하는 경우도 많다<sup>4-7)</sup>.

慢性기침은 韓方 小兒科 臨床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症狀이며 公害 및 大氣污染度의 增加, 地下生活圈의 擴大, 早期教育에 의한 集團生活의 增加 등으로 인해 呼吸器疾患이 增加되는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기침을 主訴로 내원하는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著者는 慢性기침의 治療 및 管理計劃을 수립하고자 본 研究에 臨하게 되었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1. 研究對象

1999年 9月 1日부터 1999年 11月 30

日 사이에 東義大學校 附屬韓方病院 小兒科에 3주 이상 경과한 기침을 主訴症으로 내원한 0- 12歲 사이의 初診患者 59명을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 2. 方法

診療簿에 기재된 記錄을 근거로 하여 내원 당시의 年齡, 性別, 隨伴症狀, 기침 誘發 類型, 喜溫·喜冷에 관한 選好度, 住居形態, 過去歷, 家族歷 등에 관하여 調查, 分析, 觀察하였다.

## III. 成績

### 1. 性別 및 年齡別 分布

性別 및 年齡別 分布를 살펴보면, 男子가 32명(54.24%), 女子가 27명(45.76%)로 男子가 다소 많고, 年齡別로는 2-6歲 사이가 43명(72.88%)으로 가장 많았다.

<표.1>. 性別 및 年齡別 分布

年齡\性別	男子	女子	總計(%)
0 - 1	5(8.47)	4(6.78)	9(15.25)
2 - 6	23(38.98)	20(33.90)	43(72.88)
7-	4(6.78)	3(5.08)	7(11.86)
總計	32(54.24)	27(45.76)	59(100)

## 2. 隨伴症狀

### 1) 呼吸器系와 관련된 症狀

呼吸器系와 관련된 症狀으로는 痰聲이 27명(45.76%)으로 가장 많았고, 鼻涕가 24명(40.68%)으로 그 다음순이었다.

&lt;표2-1&gt;. 呼吸器系와 관련된 症狀

症狀	患者數(%)
痰聲	27(45.76)
無痰	17(28.81)
痰多	15(25.42)
鼻涕	24(40.68)
鼻塞	9(15.25)
衄血	5(8.47)
聲嘶	3(5.08)

### 2) 消化器系와 관련된 症狀

消化器系와 관련된 症狀으로는 食慾不振을 호소한 경우가 19명(32.20%)으로 가장 많았고, 泄瀉가 8명(13.56%)으로 다음 순이었다.

&lt;표2-2&gt;. 消化器系와 관련된 症狀

症狀	患者數(%)
食慾不振	19(32.20)
偏食	7(11.86)
腹痛	6(10.17)
恶心, 嘔吐	4(6.78)
泄瀉	8(13.56)
便秘	5(8.47)

### 3) 기타 隨伴症狀

그 외 隨伴症狀 중에는 汗出이 8명(13.56%)으로 가장 많았고, 咽痛이 7명(11.86%)으로 다음 순이었다.

&lt;표2-3&gt;. 기타 수반증상

症狀	患者數(%)
汗出	8(13.56)
咽痛	7(11.86)
成長痛	2(3.39)
小便頻數	2(3.39)
呼吸困難	2(3.39)
夜尿	1(1.69)
胸痛	1(1.69)

## 3. 기침의 誘發 類型

기침이 誘發되는 상황으로는 夜間에 睡眠 중이거나 아침 起床時가 32명(54.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특별한 경우가 인지되지 않은 경우로 13명(22.03%)이었다.

<표.3>. 기침의 誘發 類型

類型	患者數(%)
睡眠 中이나 起床時	32(54.24)
活動 中	7(11.86)
찬기운에 자극시	4(6.78)
음식물섭취시	3(5.08)
특별한 경우 없음	13(22.03)
總計	59(100)

#### 4. 冷溫에 대한 選好度

飲食에 있어 喜溫, 喜冷에 대한 選好度로는 찬 것을 選好한 경우가 27명 (45.76%), 따뜻한 것을 選好한 경우가 4명(6.78%)으로 찬 것을 選好한다고 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표.4>. 冷溫에 대한 選好度

選好度	患者數(%)
喜冷	27(45.76)
喜溫	4(6.78)
普通 및 把握不可	28(47.46)
總計	59(100)

#### 5. 住居樣式

住居樣式에 있어서는 아파트에 居住하는 경우가 40명(67.80%), 一般 住宅

에 거주하는 경우가 19명(32.20%)로 아파트 거주자가 많았다.

<표.5>. 住居樣式

住居樣式	患者數(%)
아파트	40(67.80)
주택	19(32.20)
總計	59(100)

#### 6. 過去歷

過去歷으로는 肺炎, 氣管支炎, 細氣管支炎 등 呼吸器의 炎症性 疾患을 앓았던 경우가 10명(16.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鼻炎으로 8명(13.56%), 腸炎 7명(11.86%) 순이었다.

<표.6>. 過去歷

疾患	患者數(%)
肺炎, 氣管支炎, 細氣管支炎	10(16.95)
鼻炎	8(13.56)
腸炎	7(11.86)
蓄膿症	4(6.78)
中耳炎	4(6.78)
熱性痙攣	2(3.39)
新生兒 黃疸	1(1.69)
手足口病	1(1.69)
敗血症	1(1.69)

## 7. 알레르기 疾患에 대한 家族歴

알레르기 疾患에 대한 家族歴으로는 총 12명의 患者에서 있었는데 皮膚炎 6명(10.17), 鼻炎 4명(6.78%) 순이었다.

<표.7>.알레르기 疾患에 대한 家族歴

疾患	患者數(%)
皮膚炎	6(10.17)
鼻炎	4(6.78)
喘息	3(5.08)
寒冷	1(1.69)

## IV. 考察

기침은 대부분 呼吸器疾患의 한 症狀이며 呼吸器 防禦機轉의 일종으로 疾患의 경과에 따라 저절로 消失되는 自己制御性이나, 장기간 지속되는 기침은 환아나 부모들에게 근심을 줄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적극적인 原因糾明과 治療를 하도록 하게 한다.

慢性기침이란 보고자들에 따라 조금씩 相異하나, 일반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sup>1-3)</sup>, 최근 들어 알레르기 疾患 및 反應性 氣道疾患의 증가와 더불어 發生頻度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韓方病院 小兒科 내원 환자의 主訴症

에 관한 研究에 의하면 기침은 呼吸器虛弱과 더불어 가장 많은 수의 환자가 呼訴하는 症狀이었으며, 公害 및 大氣污染度의 증가, 地下生活圈의 擴大, 早期教育에 의한 集團生活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저자는 慢性기침의 治療 및 管理 計劃을 수립하기 위하여 먼저 慢性기침을 主訴로 내원한 환자들의 臨床에서의 實態와 樣相을 把握해 보고자 본 研究에 臨하게 되었다.

研究期間은 慢性기침의 發生이 換節期와 겨울철에 많다는 報告8)에 기초하여 1999年 9月 1日부터 1999年 11月 30日 사이의 3개월간으로 하였고, 對象은 病歷期間이 3주 이상인 경우만을 選擇하였으며, 蕁膿症이나 鼻炎 등 原因疾患이 確實한 경우는 除外하였다.

年齡別로는 2-6歲 사이가 43명(72.8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小兒病院 患者的 統計調查와 비교해 볼 때 幼兒期에 가장 환자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性別 分布를 살펴보면, 男子가 32명(54.24%), 女子가 27명(45.76%)로 男子가 다소 많았는데, 이 시기에는 女兒가 男兒보다 成長과 發育이 대체로 2년 반 정도 빠른 관계9)로 男兒에서 罹患率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기침은 한의학에서는 주로 咳嗽의 범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咳는 有聲無痰한 것으로 肺氣가 傷하여 不清하여 生한 것이고 嗉는 有痰無聲한 것으로 脾濕이 動하여 痰이 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대개 痰과

聲이 모두 보이므로 총칭하여 咳嗽라 한다<sup>10-13)</sup>.

咳嗽에 관련된 주된 臟腑는 脾肺腎三臟이며, 이 외에 鼻와 皮膚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肺는 高清之臟으로 陽中之太陰이 되고 外로는 一身의 皮膚를 主管하며 內로는 五臟의 華蓋가 되어 呼吸을 맡고 있으며 宣發肅降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外感이나 內傷에 의해 肺의 宣發肅降機能에 障碍를 초래하게 되면 肺氣가 逆上하여 咳嗽를 발하게 된다. 小兒는 脾胃가 薄弱하여 乳食, 生冷, 積熱 등에 의해 損傷받기 쉽고 그러면 脾의 建運하는 機能에 失常을 초래하여 收穀이 精微로 化生하지 못하고 도리어 痰濁을 형성하여 위로 肺에 가서 肺의 清氣가 宣發되는 것을 막게 됨으로 咳嗽를 발하게 된다. 또 腎은 主水하며 五臟六腑의 精을 받아 藏하는 水火之藏이다. 肺主氣하고 腎納氣하므로 氣가 肺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腎에 두고 있다 한다. 肺는 水之上源이 되고 腎은 人身의 津液을 主하므로 腎陽이 虛衰하여 脾土를 따뜻하게 하지 못해도 津液이 化하지 못하여 痰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痰의 表는 脾에 있지만 本은 腎에 있다 한다. 咳嗽는 주로 脾肺腎三藏과 관련되어 나타나지만, 小兒는 成長發育의 시기로 腎氣가 점점 旺盛해져가는 상황이므로 成人에 비해 腎虛로 인한 경우는 적고 주로 脾肺와 관련이 많다<sup>14)</sup>.

그래서, 隨伴症狀을 呼吸器系와 관련된 症狀, 消化器系와 관련된 症狀, 기타 症狀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呼吸器系와 관련된 症狀에 있어서는 가래가 많다고 한 경우는 痰多, 가래가 있기는 하지만 많지 않거나, 가래를 뱉어낼 줄 모르는 유아에서 기침시 가래소리가 들리는 경우는 痰聲, 가래가 없거나 기침시에도 가래소리가 없는 경우는 無痰으로 구분하였는데, 痰聲이 27명(45.76%)로 가장 많았고 無痰, 痰多는 비슷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가래를 동반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鼻와 관련된 症狀으로 鼻涕가 24명(40.68%)으로 그 다음 순이었는데 濁涕보다 清涕가 많았다.

消化器系와 관련된 症狀은 총 21명(35.59%)에서 있었는데, 식욕부진을 호소한 경우가 19명(32.20%)으로 가장 많았고, 설사가 8명(13.56%)으로 다음 순이었다. 이 중 기침과 함께 동반된 경우로는 食慾不振 2명, 泄瀉 3명, 嘔吐 1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평소 상태였다. 그러므로 消化器虛弱을 兼하고 있는 患者가 많았다고 보여지며, 食慾不振과 함께 偏食을 가진 경우도 10명(16.95%) 있었는데, 주로 육류와 면종류를 좋아하고, 야채류를 싫어한다고 하였다.

그 외 隨伴症狀 중에는 汗出이 8명(13.56%)으로 가장 많았고, 咽痛이 7명(11.86%)으로 다음 순이었는데, 汗出은 주로 睡眠 中에 있다 하였고, 咽痛을 呼訴한 경우에는 扁桃肥大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3명 있었다.

기침이 誘發되는 상황으로는 夜間에 睡眠 中이거나 아침 起床時가 32명(54.2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後鼻漏에 의해 형성된 가래에 의해 기침이

誘發된 경우로 보여지며 소아들은 가래를 뱉아내거나 코를 풀어낼 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은 특별한 경우가 인지되지 않은 경우로 13명(22.03%)이었고, 活動時 7명(11.86%), 찬기운 자극시 4명(6.78%) 순이었다.

飲食에 있어 喜溫, 喜冷에 대한 選好度로는 찬 것을 選好한 경우가 27명(45.76%), 따뜻한 것을 選好한 경우가 4명(6.78%)으로 찬 것을 選好한다고 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찬 음식이나 찬 기운에 접촉시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아 보호자가 찬 것을 금한다고 한 경우와 16개월 미만의 小兒로 嗜好狀態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경우는 普通 및 把握不可로 처리하였다. 喜冷에 대한 選好度가 높았던 것은 '形寒飲冷則傷肺'<sup>12)</sup>라 하여 呼吸器疾患에서 찬 것을 금하게 하는 調理法이 의미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住居樣式에 있어서는 아파트에 居住하는 경우가 40명(67.80%), 一般 住宅에 거주하는 경우가 19명(32.20%)로 아파트 居住者가 많았다.

過去歷으로는 肺炎, 氣管支炎, 細氣管支炎 등 呼吸器의 炎症性 疾患을 앓았던 경우가 10명(16.95%)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는 2-3차 反復하여 앓았던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鼻炎으로 8명(13.56%), 腸炎 7명(11.86%) 순이었다.

알레르기 疾患에 대한 家族歴을 가진 경우는 총 12명의 환자에서 있었는데, 皮膚炎 6명(10.17), 鼻炎 4명(6.78%) 순이었다. 이 중 皮膚炎과 鼻炎이 重複

되어 있는 경우가 2명 있었고, 家族 중에서는 아버지에서 있었던 경우가 7명, 어머니에게 있었던 경우가 2명, 형제, 자매간에 있었던 경우가 3명으로 아버지에서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 V. 結論

1. 性別 및 年齡別 分布를 살펴보면, 男子가 32명(54.24%), 女子가 27명(45.76%)로 男子가 다소 많고, 年齡別로는 2-6歲 사이가 43명(72.88%)로 가장 많았다.
2. 呼吸器系와 관련된 症狀으로는 痰聲이 27명(45.76%)로 가장 많았고, 鼻涕가 24명(40.68%)으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消化器系와 관련된 症狀으로는 食慾不振을 호소한 경우가 19명(32.20%)으로 가장 많았고, 泄瀉가 8명(13.56%)으로 다음 순이었다. 그 외 隨伴症狀 중에서는 汗出 8명(13.56%), 咽痛 7명(11.86%) 순이었다.
3. 기침이 誘發되는 상황으로는 夜間睡眠中이거나 아침 起床時가 32명(54.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특별한 경우가 인지되지 않은 경우로 13명(22.03%)이었다.
4. 飲食에 있어 喜溫, 喜冷에 대한 選好度로는 찬 것을 選好한 경우가 27명(45.76%), 따뜻한 것을 選好한 경우가 4명(6.78%)으로 찬 것을 選

好한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5. 住居樣式에 있어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40명(67.80%), 一般住宅에 거주하는 경우가 19명(32.20%)이었다.
6. 過去歷으로는 肺炎, 氣管支炎, 細氣管支炎등 呼吸器系의 炎症性 疾患을 앓았던 경우가 10명(16.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鼻炎으로 8명(13.56%), 腸炎이 7명(11.86%) 순이었다.
7. 알레르기 疾患에 대한 家族歷은 총 14명의 患者에서 있었는데 皮膚炎 6명(10.17), 鼻炎 4명(6.78%)순이었다.

## 參 考 文 獻

1. Irwin RS, Rosen MJ, Bramann SS : Cough, a comprehensive review. Arch Intern Med, 137 : 1186-1191, 1997.
2. Kamei RK : Chronic cough in children. Pediatr Clin North Am, 38 : 596-605, 1991.
3. Reisman JJ, Canny GJ, Levison H : The approach to chronic cough in childhood, Ann Allergy, 61 : 163-171, 1988.
4. Irwin RS, Corrao WM, Pratter MR : Chronic persistent cough in adult : The spectrum and frequency of causes and successful outcome of specific therapy. Am Rev Respir Dis, 123 : 413-7, 1981.
5. Irwin RS, Curley FJ, French CL : Chronic cough : The spectrum and frequency of causes, key components of the diagnostic evaluation, and outcome of specific therapy. Am Rev Respir Dis, 141 : 640-7, 1990.
6. 지영구 외 : 만성기침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원인 질환 및 빈

- 도에 관한 전향적 연구, 서울,  
천식과 알레르기, 18(2) :  
222-231, 1998.
7. 김경호 외 : 만성기침 환자의  
원인적 고찰 및 기관지 과민성.  
서울. 결핵과 호흡기 질환,  
44(1) : 146-153, 1997.
8. 윤상협 외 : 만성기침 환아의  
원인질환에 관한 임상적 고찰.  
서울.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2(1) : 77-94, 1998.
9. 흥창의 : 소아과학. 서울. 대한  
교과서(주), 5, 1994.
10. 이형구 외 : 동의폐계내과학.  
서울. 민서출판사, 105-202,  
1993.
11. 정규만 편 : 동의소아과학. 서  
울. 행림출판, 216-220, 234  
-242, 360-368, 382-393,  
1985
12. 許浚 : 東醫寶鑑. 서울. 대성  
문화사, 內景篇 359, 雜病篇  
85-90, 1990.
13. 李挺 : 醫學入門. 서울  
1460-1465 남산당, 1990.
14. 江育仁 : 中醫兒科學.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395-401,  
1997.